

# 생성형 AI시대의 위기와 예술에서 해법 찾기

**창의적 작업까지 자동화하는 AGI(범용인공지능) 시대를 앞둔 지금, 동시대 예술가들은 탈-인간 중심적 삶의 모색을 통해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문어의 분산된 지능을 상상하고, 새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청’의 힘으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려는 예술적 시도들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기술이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본다.**

글. 김주원(큐레이터, 한빛교육문화재단 이사)

## 인간과 AI의 경쟁 시대

동시대를 규정하는 용어들 가운데 미디어 노출 빈도가 높은 것을 꼽으라면, ‘기후 위기’, ‘인류세’,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ESG’, ‘공생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용어는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기술 발달에 따라 인류가 직면한 위험 요소의 증가나 그 대응과 관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자신의 저서 『위험사회(Risk Society)』(1986)에서 자연에 의해 초래되는 위험(danger)과 사람에 의해 초래되는 인위적 위험(risk)을 구분했지만,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모든 위험(danger/risk)은 코기토(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데카르트의 명제)로서의 ‘인간중심’의 근대적 기획과 성공인 듯 보였던 그 기획이 자초한 딜레마적 상황임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인간 이성에 기댄 근대적 기획의 동시대적 성공과 딜레마적 상황은 위 용어들이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즉 AI 다음 단계인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인공지능)’의 상용화는 다음과 같은 아이러니를 안고 있다. 우선, 우리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과거 산업혁명에 비견될 만큼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쟁 시대라는 위험하고 불순한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시그널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쟁이라니! 이 얼마나 불순하고 무서운 서사인가!

그 예증은 다름 아닌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 믿어왔던 ‘감수성’, ‘상상력’, ‘창조성’, ‘천재성’ 등에 기초한 ‘예술(작품)’조차 인간과 인공지능 간 경쟁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예술계 내부의 잇따른 인공지능과의 저작권 이슈 관련 뉴스들은 AGI가 예술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기대와 디스토피아적 우려가 팽



염지혜, <에이아이 옥토퍼스>, 2020, 단채널 영상, 16분 35초.  
피노파운데이션 미술관 컬렉션, 사진: 염지혜.

팽히 대립하며 경쟁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잘 알다시피 AGI는 대화형 AI인 챗GPT와는 달리 창의적인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게 해주는 AI이다. 이른바 마치 인간처럼 사고하고 감응하며 창작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AGI는 이미지, 텍스트, 음악, 코드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고 아트마켓에서 거래되는가 하면 각종 공모대회에서 수상도 한다. 예컨대, 2022년 9월 CNN 등 외신은 게임 기획자 제이슨 앨런이 미드저니 AI로 제작한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콜로라도 주립박람회 미술대회’의 디지털아트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보도했다. 제이슨 앨런의 미드저니AI 제작 작품과 미술대회 수상은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가와 예술(작품)에 관한 정체성 논쟁을 촉발하면서, 과학기술은 도구인가? 인간 상상력의 확장인가? 등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 외에도 AG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실제 예술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영화 <블레이드 러너>(1982) 속 인간처럼 기계/복제-인간과의 차이를 증명해야 하는 슬픈 세계를 마주할지도 모른다.

## 시대적 해법1: ‘그것이 되어봄’을 상상하기

작가 염지혜의 <에이아이 문어(AI Octopus)>(2020)는 동시대가 직면한 위험이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사유체계로서 ‘그것이 되어봄’을 상상하길 제안하고 있다.

16분 35초 분량의 싱글채널 영상인 이 작품은, 지능이 매우 높아 한 발짝 먼저 위험을 감지한다고 알려진 문어(Octopus)가 모티프이다. 바다의 현자라 불릴 만큼 영리하다고 알려진 문어는 총 8개의 촉수와 큰 뇌를 가지고 있다. 뇌는 그 절대적인 크기만 보면 인간의 1/600 사이즈지만, 애초에 신체 크기도 다르고 인간과 달리 온몸에 뉴런이 분포해 있어 탐색이나 물체를 움켜쥔 등은 굳이 머리에서 직접 명령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다. 무척추동물을 통틀어 크기 대비 뇌 용량도 가장 크다. 그에 걸맞게 문어는 주변 움직임을 흉내, 모방을 할 수 있으며, 높은 사고능력, 학습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더러 장난도 친다는 학계 보고도 있다.

염지혜의 <에이아이 문어>는 위와 같은 문어의 생물학적 특성을 주목하고, 인간 중심의 무분별한 과학기술의 발달 등이 초래

한 폭력과 위기의 원인을 질문하고 있다. 작가는, 보통 인공지능으로 여겨지는 ‘에이아이(AI)’에 ‘문어’를 붙임으로써 <에이아이(AI) 문어>를 상상하였다. 그리고 꽤나 낯설지만, ‘문어 되어봄’을 상상하자고 제안한다. 염지혜의 <에이아이 문어>는 촉수 전체에 뉴런이 분포되어 있는 문어 되어봄을 통해 인간/뇌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중심’의 근대적 기획, 그 이분법적 구조가 경직되어 끌어안지 못한 수많은 것들의 생명과 현존을 노래하며 상호 공존, 상호 연결된 현실의 직시를 외치고 있다. “... 나는 문어지능(Octopical 피). 지능의 유연한 형태 / 인지, 지능, 지식, 감각. 연결! / 감정, 느낌, 마음, 의식. 연결! / 신경, 진화, 경험, 존재. 연결! / 현재, 미래, 정신, 기억. 연결! / 모든 건 연결되어 있어!”

## 시대적 해법2: ‘찬미’와 ‘애도’하기

얼마 전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드리프팅 스테이션-찬미와 애도에 관한 행성간 다중 오페라》(2025.6.27-8.3)는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경외와 존중의 태도로서의 ‘찬미’와 사라진 존



천경우, <나무들을 위한 노래 #1, #2>, 2채널 영상, 사운드, 2023, 사진: 아르코미술관.

재를 감각하고 기억하려는 윤리적 실천으로서의 ‘애도’를 지구적 위기 속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대안적 감정/태도로 제시하였다. 타자를 향한 ‘찬미’와 ‘애도’는 코기토 이래 가속화되었던 인간 중심적 근대기획이 외면한 감정/태도이었던 것 같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 8명/팀 가운데 비인간 존재와의 소통과 생태적 감각을 탐색하는 천경우 작가의 두 작업은 눈길을 끈다. 2채널 영상 작품인 <나무들을 위한 노래>(2023)는 두 명의 어린이가 인도 소수 언어로 구전되는 노래를 식물에 불러주는 장면으로 구성되었다. 작품은 인간이 아닌 자연/나무에게 익숙한 옛노래, 옛말을 들려줌으로써 오랜 세월 고향 땅을 지키며 살아온 자연/나무의 삶/생명을 찬미하고 어린이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 등과 나누며 이어온 소통과 생태 감각을 애도하여 감각의 기억을 되살리려 하였다. 또한 ‘헬싱키비엔날레2021’ 커미션으로 제작된 작업 <버드 리스너(Bird Listener)>(2021, 2025)는 자연 정복으로 표상되는 근대성의 기획적 범주와 다소 무관할 수 있는 ‘새’와 ‘새소리’를 주목하면서 인간과 자연, 즉 단절된 관계와 그 경계 넘기의 가능성을 모색한 참여형 설치 작업이다. 작가에게 새는, 인간은 물론 특정한 자연환경과 대지에 서식하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국경/경계 없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초경계적 존재로 여겨진 듯하다. 작가는 헬싱키 앞바다의 섬 주변을 날아다니는 가장 전형적인 새들의 소리 6종류를 조류학자와 같이 수집하여 전시장에 설치하였다. 관람객은 각각의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헤드폰 중 하나를 들으며 그 새의 형상을 집중하여 상상해 보고 주어진 종이에 준비된 펜으로 새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린다. 그리고 ‘버드 리스너’로서 새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평소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잘 경청해 주는 실재인물(Best Listener) 한 명의 이름을 떠올리며 본인이 그린 새 그림에 그의 이름을 적는다. 작가는 이 작업을 통해, 말하는 자와 경청하는 자의 관계는 서로를 듣는 행위에서 시작됨을 말하고 있다. 무심코 지나치며 귀 기울이지 않



천경우, <버드 리스너>, 참여 퍼포먼스와 설치, 2021/2025, 사진: 아르코미술관.



천경우, <버드 리스너>, 참여 퍼포먼스와 설치, 2021, 사진: 헬싱키비엔날레 홈페이지.

았던 새소리를 경청한다는 ‘찬미’의 행위는 나를 가장 잘 경청해주는 타자의 존재를 감각하고 기억하는 ‘애도’의 극진한 태도와 공명한다.

### 우리의 지속가능한 공생가능성

앞서, 열거한 동시대 용어들 가운데, ‘기후위기’, ‘인류세’, ‘인공지능’은 위험사회의 징후로 거론할 수 있다면, ‘ESG’(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공생세’ 등은 인류가 직면한 위험 요소에의 대응이나 해법과 관련 있다. 두 용어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핵심 아젠다로 삼고 인간중심의 인류세에서 모든 생명의 상호존성을 지향하는 공생세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아닌 ‘타자 되어봄’, 인간이 아닌 ‘문어 되어봄’, 무심히 지나쳤던 ‘그것이 되어봄’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말하기보다 타자를 ‘경청’하고 그에 집중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술 작품을 둘러싼 AGI와의 저작권 논쟁으로 표면화된 인류의 실존적 위험은 유행이나 힙한 용어로서의 ‘ESG’와 ‘공생세’의 공허한 사용만으로 막아낼 수 없다. 지구, 생명, 공동체 속에서 나/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 성찰하고 타자/자연/비인간을 찬미하고 애도하는 윤리적 실천에 진심을 다할 때 지속가능한 공생가능성은 실현되지 않을까.

#### 김주원

대구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재)유영국미술문화재단에서 학예연구실장을 지냈다. 홍익대학교 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일본 CCA 기타큐슈 초청 펠로우로 활동했다. 2002년부터 현대미술 분야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전시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 GGAC STORY

## ZOOM IN

담을 넘는 예술, 거리로 나선 감동

<거리로 나온 예술> 조일현·정의연·지수원 PD

## GGAC NEWS

## CALENDAR

## EPILOGUE

